

Safety News

제17대 노동부 장관 취임



지난 8월 7일 제17대 노동부 장관에 김호진 노사정위원장이 취임했다. 김호진 노동부장관(61세 경북 안동출신/고려대 교수/고려대 노동대학원장 / 제3기 노사정위원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산업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노동정책이 현장에 접근해 노사와 국민들로부터 신뢰 받는 노동행정을 구현하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김호진장관은 이를 위해 예방노동행정, 현장노동행정, 준비된 노동행정, 가슴으로 하는 노동행정 등 4대 노동행정지침을 강조했다.

김호진장관은 경제환경과 노동행정의 변화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대비가 필요하다 보고 각종 제도와 시책을 대폭 개선하고, 특히 노사간 신뢰에 기반을 둔 신노사문화를 산업현장에 정착시켜 현재 진행중인 근로시간단축

에 관한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근로자 생산적 복지 확충, 지식근로자 양성을 위한 직업훈련체제 개선, 장기실업자, 청소년 실업자 중심의 고용안정대책의 내실화, 노동행정의 규제개혁 추진 등 열린행정을 펴나가겠다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 무료법률 상담운영



근로복지공단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무료법률상담 코너를 운영하고 있다. 이 사이트는 <http://lawsee.com>으로 채권/채무, 임대차/전세, 강제집행, 일반형사, 교통사고/손해배상/보험, 상속/이혼/가사, 세무, 행정, 노동/산업재해, 의료사고, 지적재산권, 회사, 기타 분류 사례까지 법조인과 직접 상담을 할 수 있게하고 있다.

법조인도 상담자가 검색하여 상담이 가능하며, 1:1 화상상담도 운영하고 있어, 경비부담으로 고민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유용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전기공 “STOP 기법” 교육 성공리에 마쳐



대한산업안전협회 중앙회에서는 한전기공 전 사업장 안전관계자를 대상으로 지난 8월 22일부터 강원도 오색그린야드호텔 연수장에서 2차리에 걸쳐 “STOP기법 실무” 연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 STOP기법은 미국 듀폰사 등 선진 외국에서 활용하고 있는 선진기법으로 국내에는 대한산업안전협회가 독점보급하고 있다.

이번 연수를 통해 선진기법을 습득한 한전기공 안전관계자는 새로운 기법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갖고, 교육하는 동안 열의를 보이는 모습이었다.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개정

- 5인미만 소규모 사업주에 대한 산재예방 책임강화 -

노동부는 지난 8월5일 5인미만 사업주에 대한 산업재해예방 의무를 강화하고, 산업재해예방에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않는 일부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을 개정 공포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해 안전상의 조치의무(기계·기구, 폭발·화재, 전기, 건설작업 등 관련 안전사고 예방의무), 보건상의 조치의무(분진, 연, 유기용제, 산소결핍 등 관련 건강장애 예방의무), 연 등 116개 위해 물질취급 사업장에 대한 작업환경측정 의무, 5인미만 모든 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 의무 등을 추가하였다.

안전 및 보건상의 조치의무는 6개월의 보완기간을 거쳐 시행되고, 작업환경측정 의무 및 건강진단 의무는 2002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이 밖에 리프트, 지게차 등 기계·기구를 대여 및 대여받은 자에 대한 안전관리 책임이 강화되었으며, 노동집약도가 낮은 토목공사는 공사금액 150억원, 상대적으로 노동집약도가 높은 건설공사는 공사금액 120억원이상으로 안전관리자 선임의무를 완화하였다.

Safety News

(주)대우·현대건설 등 66개 건설업체

자율안전관리업체로 지정

노동부는 안전관리가 우수한 건설업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건설업 자율안전관리업체 지정제”와 관련하여 최근 3년간 우수한 안전관리 활동을 한 (주)대우·현대건설 등 66개 건설업체에 대해 자율안전관리업체로 지정하고, 이들 업체가 착공하는 공사에 대해 앞으로 2001년 7월까지 1년간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제출 및 심사와 해당공사 종료시까지 확인검사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이 제도는 노동부가 지난 97년부터 업계의 자율적인 안전관리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4년째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안전관리가 우수한 업체에 대해서 자율안전관리를 유도하고, 행정력을 중소건설현장에 집중투입함으로써 건설재해예방의 효율화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안산지방노동사무소, 산재은폐 자진신고기간 운영

노동부가 산업현장에서 업무와 관련된 산업재해를 누락시키는 산재은폐 사례를 뿌리 뽑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 안산지방노동사무소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나 질병을 누락하는 산업재해 은폐를 적극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16일부터 31일까지 보름간 “산재은폐 자진신고기간”을 설정,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안산지방노동사무소는 이 기간중 과거 산재은폐 사실을 안산지방노동사무소 산업안전과에 전화(031-412-1973)나 팩스(031-439-1903)로 신고한 사업주에 대해 행정적, 사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방침이다.

또한 자진신고기간 이후에는 의료보험조합 등 관련 기관 자료를 제공 받아 무재해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 산재은폐 사실을 철저히 밝혀내고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와 관련 안산지방노동사무소 관계자는 “무재해 달성, 정부포상, 재해율 상승 등의 여러 이유로 산업재해를 신고하지 않고 의료보험이나 공상 처리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며 “적발될 경우 그 사안을 판단해 경미한 경우에는 경고로, 고의적으로 산재를 은폐하려 한 경우에는 사법처리까지 취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산재은폐란 사업주가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나 질병자가 발생했으나, 1개월 이내 노동부나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를 말하며, 적발될 경우 사법조치된다.

협회 사업설명회 참석자 호응 좋아.....

대한산업안전협회는 지난 8월 30일에 창원 기능대학 산업협동관에서 협회 사업활성화를 위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사업설명회는 대한산업안전협회 이홍지회장과 창원지방노동사무소 조준행 소장 등 각계 단체와 회원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 졌다.

사업설명에 앞서 조준행 소장은 하반기 노동부정책방향에 대해 중대재해감소와 하절기재해예방에 대해 역설하였다. 이날 행사는 이홍지 회장의 인사말로 시작하였으며, 한남수 부장이 협회에서 이뤄지고 있는 교육, 진단, 자체검사사업 등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였다.

매년 전기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증가

99년도 전기화재는 총 1만1천2백4건으로 이로 인한 사망자가 5백5명이 발생하였으며, 95년부터 99년까지 화재 발생이 점차 증가 추세에 있고, 전기로 인한 화재가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한국 전기안전공사는 최근 발표한 자료를 통해 99년 발생한 화재 3만3천8백56건중 전기로 인한 화재는 1만1천2백4건으로 33.1%를 차지해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99년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총 2천3백70명의 21%인 4백97명으로 98년보다 47명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화재로 인한 재산피해액은 총 화재 피해액 1천6백64억2천6백만원중 32.9%인 5백46억7천3백만원의 손실을 가져왔다.

노동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안내' 책자 발간

노동부는 최근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안내' 라는 책자를 발간, 지방관서에 2천부를 무료 배포했다.

이책은 노사가 협력해 생산성을 제고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이익금의 일부를 기금으로 출연해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높이는데 크게 활용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발간된 책자는 부록 포함 2백5쪽에 걸쳐 사내 근로복지기금에 대한 다양한 사항을 알기 쉽게 정리하였다. 한편, 기금은 사업주의 출연으로 조성하게 되며 사업체의 세전순익의 5%를 기준으로 노사가 협의해 출연금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출연금은 최저·최고한도 규제가 없어 자유롭게 출연금을 정할 수 있다. 